

만민중앙소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이 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발행처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이재록 인쇄인 김신경 편집인 반금선
 등록번호 다-1840(1989. 7. 12.) e-mail: manminnews@hotmail.com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02-818-7000

MANMIN NEWS

news.manmin.or.kr

제393호(구413호) 2009. 6. 28.(격주간)

신인류 난치병, 아토피성 피부염에서의 탈출 영유아 10명 중 2명 꼴 환자, 나날이 증가 추세



화상입은 것처럼 심했으나 기도받고 3주 만에 치료받은 김예지 어린이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심했던 왼손을 치료받은 김아현 집사



온몸 아토피성 전염성농가진을 치료받은 이수정 어린이

목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은 김성범 형제

얼굴과 살이 접하는 부분을 치료받은 유승리 어린이

현대인의 생활을 위협하는 아토피성 피부염은 신인류 난치병으로 불린다. '아토피'는 그리스어로 '기묘해서 알 수 없다'는 뜻으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의학계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에이즈, 암에 이어 현대의학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취급하고 있다.

심한 가려움증이 특징인 이 질환은 면역체계의 이상에 따른 것으로 유전과 환경오염, 인스턴트 위주의 식생활, 스트레스 등의 환경요인이 주원인이다.

현재 아토피성 피부염은 국내 영유아 10명 중 2명이 앓고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의외로 성인 중에도 이 질환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200만 명에 이르며 이중에서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무서운 것은 가려움증과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고통으로 인해 이민까지 가는 이들도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의학적 처방을 전혀 하지 않고도 하나님 능력으로 극심한 아토피성 피부염이 신속하게 치료된 사례가 넘친다. 더욱이 치료 뒤에도 흉터 등 후유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간절한 기도와 금식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 무안 단물을 마시고 바르는 등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을 때 그들은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다.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아토피성 피부염도 믿음을 내보일 때, 하나님 능력으로는 능히 치료되는 것이다.

| LIGHT & SALT |

일본 이다 만민교회 '사랑의 식사나누기'

6월 13일, 이다 만민교회에서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을 초청해 '사랑의 식사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다 만민교회 아동으로 구성된 '키즈댄스' 팀과 부채무용회인 '후지기류 센부카이' 팀의 공연 후 복음을 전한 데 이어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제공했다.

이다 만민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테마로 보란티어회를 발족,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다 시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또한 노인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위문 활동 등 복지 사업과 성탄 콘서트 등 한일 교류 행사를 가져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해왔다.

| EDUCATION |

2009 아동·학생주일학교 교사강습회

'마음'(요 15:7)이라는 주제로 '2009 아동·학생주일학교 교사강습회'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교회 4성전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참여한 주교사들은 <공과 지도>, <영적 심방>, <교수법>, <아동 및 학생 심리 이해와 사춘기 대처법>, <목자의 마음>, <초·중·고생 변화와 현실탐구>, <결단의 시간> 등 강의를 통해 교사 자질을 함양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GCN TV |

파워 프레이즈 시즌 2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찬양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는 'GCN(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 파워 프레이즈' 시즌 2 녹화가 지난 6월 23일에 우리 교회 특설무대에서 있었다.

매달 한 번 녹화하는 'GCN 파워 프레이즈'(인도 이수진 목사)는 시즌 1이 2005년 12월 첫 녹화 후 25회로 마쳐진 뒤 GCN 시청자는 물론, 세계 곳곳의 뜨거운 호응으로 2008년 8월 시즌 2로 재개 되었다.

| 칼럼 |

귀 기울이는 사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그 음성을 들으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자연이나 성경, 혹은 기사나 표적, 믿음의 사람을 통해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이며 말씀하십니다. 단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체험하거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로마서 1:20)

글 이재록 목사 동아일보 연재 '실로암'에서

| BOOK |

나를 찾아가는 신비로운 이야기 『영혼육』(상) 발간

4차원을 넘나드는 심오한 영성과 통찰력으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이재록 목사 저서 『영혼육』이 6월 27일 발간됐다.

이재록 목사의 57번째 저서인 이 책은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사람의 영혼은 언제 주어지는가?', '내 씨를 키운 생명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심도 있게 다뤄져 있다.

성경에 기록된 육, 육신, 육신의 일, 육체, 육체의 일, 혼, 영 등에 대한 영적 의미와 난해구절이 풀리며, 성경과 인간에 대한 근본 이해를 돕는다. 나를 찾아가는 신비로운 이야기로 독자들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림북 (02) 837-7632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 1-7)

여러분은 얼마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에 속한 영의 세계, 곧 천국에 있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만 신속히 영의 마음을 이루어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신령한 것이란 ?

‘신령한 것’이란 육과 반대되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의 세계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이며 하나님 주권 아래 움직입니다. 특히 빛에 속한 영의 세계, 천국의 모든 것은 신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시민권을 받으니 당연히 영의 세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만일 교회에 다니기만 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으니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의심하며 믿지 않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핍박받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썩지 않으며 빛도 바래지 않습니다. 또한 악이 전혀 없고 선만 가득하며 어둠이 전혀 없고 오직 빛만 있습니다. 슬픔, 아픔, 힘들도 없으며 오직 기쁨과 행복, 평안만 있지요.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빛에 속한 영의 세계를 사모하라는 의미이며, 또한 자신의 마음이 천국처럼 되기를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인 천국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역사와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를 줄 수 있습니다. 과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

2.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면

첫째, 헛된 세상의 것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만일 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꿀 한 숟가락을 먹고 나서 바로 배를 먹으면 어떨까요? 앞서 먹은 꿀이 너무 달기 때문에 나중에 먹은 배는 마치 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것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아무런 맛도 재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의 것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헛된 세상의 것을 쉽게 버리고, 능력과 권능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맛본 후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너무도 무익하고 오히려 해가 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철저히 세상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핍박했던 자신을 용서하고 오히려 사도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해 자기를 깨뜨려 나갔지요.

영으로 변화되는 만큼, 사도 바울은 더 깊은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과의 밝은 교통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영으로 천국에 다니오는 체험도 합니다. 때론 핍박과 고난도 당했지만 마음은 항상 천국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얻을 수 있지요. 또한 신령한 은혜 안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참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헛된 것을 쉽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능력이 임하며 더 나아가 권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 온 영의 사람이 되면 권능을 받습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죽음 앞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흥성회를 찾아 다녔고 초신자 때부터 성경도 사모함으로 읽으며 시간만 나면 기도했지요.

이처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니 점차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혹여 단번에 죄가 버려지지 않으면 3일 금식, 7일 금식도 했습니다. 간절히 영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기도의 응답도 척척 왔습니다(요일 3:22). 만 3년의 연단을 통해 영으로 들어 간 후에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능력이 임했고 온 영의 단계에 들어오면서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영을 사모해 영의 마음이 되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도 임합니다. 나아가 온 영을 이루고 불같이 기도하면 권능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든, 세상에 속한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영을 사모해 영혼이 잘된 사람은 성령의 밝은 음성과 인도 주관을 받아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이방나라에 잡혀간 포로와 종의 신분이었으나 어떤 상황에서 서도 하나님 법을 지키며 영의 마음으로 살아가니 위로부터 뛰어난 지혜와 명철이 임했습니다. 큰 나라의 총리로서 영육간에 자질을 두루 갖추어 왕과 백성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았지요.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행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 영의 사람이 될수록 영이신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더 밝히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주관도 더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순종해 나가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합니다. 세상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뛰어난 실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으며 각각의 분야에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이재록 목사 대표 저서 |

십자가의 도 15개국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영적 집에서 깨우고 참 생명을 주는 감동의 메시지!
하나님의 참사랑이 이곳에 담겨 있다.

천국 상·하 천국의 비밀을 말한다



상: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곳
하: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곳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행복과 영화를 누릴 황홀한 천국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한 그림 같은 메시지

지옥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지옥의 참상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내는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

믿음의 분량 믿음의 단계별 지침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이방인 복음 전파로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의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 강해



탄생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깨우쳐 주므로 영적 성장은 물론, 응답과 축복으로 인내할 예수님의 열매가

고린도전서 강해 상·하 지혜와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



분쟁이나 전도, 결혼, 우상의 제물이나 영적 은사 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하나님 뜻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나의 삶 나의 신앙 1·2 멈추지 않는 감동과 진실의 향기



지금도 성경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 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마다 치유되고 살아나는지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그 비밀의 열쇠는 무엇인가?

깨어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비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려 왔던 모든 유대인에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며, 참된 해답을 주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온 인류에게도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천냥 야채' 사장, 방 집사의 행복 이야기

IMF로 직장 잃은 뒤 야채 장사로 체인점을 갖기까지 방행석 집사 (1대대 2교구, 2-1남선교회)



가족과 단란한 한때 (왼쪽부터 지은, 지성, 방행석 집사, 지혜, 아내 박정숙 집사)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이 더욱 재미있는 것이 아닐까? 평범한 회사원이 야채 가게 사장이 된 것과 체인점을 갖게 된 것이 그 중에 하나이다.

1999년, 내가 IMF로 직장을 잃은 뒤 일이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눈앞으로 야채를 실은 트럭 한 대가 지나갔다. '바로, 이거다!' 나는 곧바로 트럭 하나를 장만해 골목을 돌며 야채 장사를 시작했다. 경험이 없어서인지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요셉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어려움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신다고 믿었다. 때문에 매출이 좋지 않은 날에도 얼굴은 밝게 감사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관악구 난곡동 어느 골목 귀퉁이에 작은 가게를 얻게 해주셨다. 상호는 '천냥 야채'로 정했다. 부담 없는 가격인 단돈 천 원으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길 원하는 마음에서였다. 비록 천 원짜리 야채를 팔지만 나에겐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에 친절히 대하며 정도를 좇아 싱싱한 야채만을 팔고자 애썼다.

도매시장에 갈 때면 나는 항상 마음을 추슬러야 했다.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민감한 곳이라 어찌다가 큰 소리라도 나면 하나님께 죄송해 마음이 무거웠다.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는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니 내 이익만 따지느라 상대를 힘들게 하는 내 모습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좀 손해 보는 듯해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줄 만큼 넉넉한 마음이 되자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 사실 '체인점' 아이디어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변에선 '불가능한 일이니 선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그럴 수록 마음에 확신이 왔다. 그렇게 해서 '천냥 야채' 2호점이 생긴 것이다.

이 가게 터를 인수할 때에는 매일 한 번씩 가게 앞에 가서 "이 가게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길이 열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하며 기도했다.

3호점, 4호점, 5호점이 탄생하기까지 나는 모든 것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 의미로 직원들 급여와 부대비용의 십일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상황이 어

려울 때는 수첩에 메모해 놓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드리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허덕이던 나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통해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1995년의 일이다. 영적인 말씀이 너무 좋아 밀려오는 감동과 함께 '천국' 설교 테이프를 무릎 꿇고 들었던 기억이 난다. 교회 구석 구석에 은혜가 넘쳐 천국 같았고 만민의 양떼라는 사실 만으로도 행복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나는 만민봉사대원으로, 아내는 기도 제물로 헌신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얼마 전 막내아들 지은(6세)이를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했다. 지은이가 콧물 때문에 답답해하고 숨쉬기조차 힘들어해 병원을 찾았는데 중이염, 축농증, 비염이었다. 하지만 금식과 기도로 준비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뒤, 깨끗이 치료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응답하시고 이전보다 더한 사랑으로 안아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



방광염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강정임 집사 (구미만민교회)



남편 양운복 집사와 함께

지난 3월 21일부터 소변이 자주 마렵고 막상 화장실에 가면 잘 나오지 않는 증세가 반복되었습니다. 소변을 볼 때면 온몸이 저릴 정도로 고통스럽고 변기에 20-30분간을 앉아 있어도 전혀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외출도 할 수 없었지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증상이 방광염인 것이 확실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방광염보다 더한 병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나도 하나님께 맡기자."

3월 31일, 저는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치료된 것을 믿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4일 뒤 저는 치료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잤을 뿐 아니라 통증 없이 쌀뜨물처럼 뿌연 소변을 본 뒤로는 소변이 깨끗한 것입니다. 이 일은 남편에게도 믿음이 되었지요. 지금은 방광염 증세가 모두 사라져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승진됐다고요?

백성규 집사 (1-3가나안선교회, (주)삼광PS 연구개발 기술팀 대리)



생각지 못한 승진 소식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사 3년 차도 어려운 승진이 되다니 ...

저는 크리스천이라면 영육간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제게 맡겨진 일이든 아니든 최선을 다했지요.

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 영적 관리를 위

"승진 축하해요! 이젠 백 대리로 불러야겠네."

입사 2년 차인 저는

해서 퇴근이 늦어도 매일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만큼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선교회(미혼 남녀 대학 졸업자 모임) 봉사부 활동을 통해 성령 충만을 잃지 않았지요.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축복이 오는구나!' 하고 하나님 사랑에 새삼 감사했습니다.

동료들은 "입사할 때부터 사장님이 권한하는 술도 정중히 사양하며 신앙을 지키더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함께 기뻐해 주었지요.

직장을 구할 때부터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급여 조건도 특별 대우라 할 만큼 크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1부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배울·마리아] 오후 8:00
2부 오전 11:3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11:4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오후 1:30

교회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070-8240-56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 우리은행 072-255732-02-201
- 농협 100072-52-061722
- 우체국 012419-02-047269



네팔 | 시한부 삶에서 기적같이 살아나

수닐 샤카 (네팔만민선교센터)



약 2년 동안 어지럼 증세가 있던 저는 2008년 1월 어느 날, 방 앞 발코니에 앉아 있다가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인근 파탄 병원 중환자실로 향했지요. 의사는 당뇨병에 합병증까지 겹쳐 매우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큰 종합병원인 태쿠 병원으로 옮겨 재검진을 받았으나 한 달 안에 사망할 것이라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저는 전신 마비 상태에서 오로지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식물인간이었습니다. 두 눈을 뜬 채 끊임없이 눈물만 흘리

는 저를 보며 가족은 안타까워했지요. 퇴원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만을 기다렸습니다.

7월, 어느 날 아내의 친척이 찾아와 네팔 만민선교센터를 소개했습니다. 얼마 뒤 이혜천 선교사님이 심방을 오셨지요. 저는 말도 할 수 없고,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으나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꼭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선교사님은 말씀을 해주신 후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제 머리에 대고 간절한 사랑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렸지요. 놀랍게도 기도를 받은 뒤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펄 듯이 기뻐했지요.

한 성도가 핸드폰에 녹음한 이재록 목사님 환자 기도를 받은 뒤에는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된 가족은 무안 단물을 저의 입과 목 등에 발랐습니다. 그때마다 제 얼굴이 환해지고 말도 잘하는 등 몰라보게 달라졌지요.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일어설 뿐 아니라 전신 마비도 풀려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4575-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387-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9870-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를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중앙교회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488 삼익 2차 101동 704호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림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성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1-608-30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65-1 ☎031)840-2906, 019-251-3149



니카라과 | 가난한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저는 니카라과 에스텔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 온두라스 만민교회에서 이재록 박사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박사님의 깊이 있는 영적 말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뒤 지금의 사역지로 와서 저는 스페인어 만민중앙소식, 그리고 박사님의 저서와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팔복 등 설교 DVD를 요청해 말씀을 무장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예배드리며 성경 공부하니 성도들도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길 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게 되길 원

하지요. 물론 많은 사람이 이미 엔라세 방송(중남미 최대 기독교방송사)을 통해 박사님의 말씀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으로 케이블 방송을 보지 못하는 많은 이가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 에스텔리 만민교회에서 송출하는 지역 방송으로 박사님의 말씀과 환자기도, 만민중앙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라디오 방송과 말씀 DVD로 많은 이가 응답과 치료를 받아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쉴피다 쉐비야 페레스 성도는 DVD로 주요 예배를 드리던 중, 설교 후 박사님께서 해주신 환자 기도를 받고 천식이 치료되었습니다. 무안 단물을 통해 베로니칸 하



마이라 탈라베라 라군나 목사 (믿음의 성전 교회)

로 낀 성도 어머니는 위장병을, 여동생 딸(1세)은 빈혈과 신장 감염증이 치료되었지요. 또한 하니 바스게스 성도는 라디오 방송에서 해주신 환자 기도를 통해 자녀들의 질병이 치료되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박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전을 갖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대만 |

“막연했던 성결의 길이 밝히 보여요”



양인통 자매

지난 6월 3일부터 8일까지 대만의 만민중화신학원(萬民中華神學院 Manmin China Seminary) 원장 김경희 목사를 비롯, 학생 총 19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성결 복음과 권능의 사역에 큰 은혜를 받은 이들은 직접 보고 체험한 것으로 사역을 더 크게 이루어 갈 것이다.

그 가운데 김경희 목사를 도와 이재록 목사 저서 및 MIS(만민국제신학교) 교재 보급으로 대만 복음화 사역을 도우며 신학을 공부하는 양인통 자매가 있다.

“대만의 천은출판사 덩 웡핑 사장님이 전해 준 이재록 목사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뒤 『십자가의 도』, 『천국』(상)(하), 『지옥』 등 중국어로 번역된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를 전부 읽었지요.”

이번 방문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갈무리하는 방법을 깨우친 그녀는 “영혼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 가장 중요한 마음을 깨우쳐 주신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성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풍성한 열매를 맺

기 원한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대만 목회자 및 일꾼 일행 85명 중 한 사람으로 2007년 5월에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했다. 그때 ‘성결’에 대한 막연함이 이재록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이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성결의 길이 막연하기만 했지요. 하지만 이재록 목사님께서 성결 말씀을 너무나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결을 이루는 방법을 알아가니 제 자신을 발견해 죄를 버릴 수 있게 되었지요.”

또한 그녀는 주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빛과 소금 선교회를 접하고 대만에도 설립하기 위해 기도했다. 지금은 고도 백화점, 대북 101 백화점 등 곳곳에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만민중화신학원 학생들